

‘과거’ 투영된 창작·전시·교육 복합공간 ... 예술 전파 발산지 변신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6〉 인천 아트플랫폼

인천=박진현 문화선임기자



1880년대 개항기 유적과 1930~40년대 건물들을 창작스튜디오, 공연장, 교육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인천 아트플랫폼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883년 개항 후 문화재·1930~40년대 건물들 리모델링

2009년 개관, 시민 문화사랑방·예술가 창작 인큐베이터

美·獨 등 서구권도 관심 ... 작년까지 국내외 200여명 동지

옛 도심의 문화예술공간화 ‘스트리트 뮤지엄’ 조성 부푼 꿈

언제부턴가 인천은 국내외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시로 불리고 있다. 매년 수십 여명의 작가들이 인천으로 옮겨와 동지를 들고 푹푹 뛰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한다.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프로젝트 ‘정명 600년, 변모하는 도시 인천’이 좋은 사례다. 인천아트플랫폼(관장 이승미)이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레지던시 작가 6명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져 가는 인천의 기억과 흔적을 인문학적으로 되살려 내는 작업이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이들 작가들은 ‘철거현장’(Demolition Site), ‘1호선’, ‘송도 조우한 풍경’, ‘송도우주센터 전망대’, ‘안개와 연기(Fog and Smoke)’, ‘이 도시가 꿈꾸었던 그 꿈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 봤다. 그중에

서도 인천 구 도심 개발의 대명사인 루원시티를 카메라 앵글에 담은 정지현 작가의 ‘Demoliton Site’는 시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작품은 홍물로 전락한 빈 건물의 철거 과정을 수십여 개의 사진으로 담아내 마치 한편의 다큐멘타리를 연상케 했다. 건물의 한 부분을 빨간색 페인트로 칠한 다음 이 ‘빨간방’이 어떻게 무너지고 사라져 가는 현장을 통해 맹목적인 도시화의 ‘장밋빛 환상’에 경종을 울렸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도시의 재개발이 곧 개인의 흔적을 지우는 ‘삶의 철거’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도시 재개발의 폐해를 재해석해 복원의 중요성을 조명한 전시는 인천 아트플랫폼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인천시 중구 해안동에 자리한 아트플랫폼은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문화재와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꾼 곳이다. 구 일본 우선주식회사(8천450㎡·등록문화재 제248호)와 대한통운 창고, 삼우 인쇄소, 교회, 금마차 다방, 장수 영양탕 등 옛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창작 스튜디오(레지던시), 공연, 공연장,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등 13채의 붉은 벽돌 규모로 꾸몄다. 개항장 부두가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해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이자 예술가들의 창작 인큐베이터로 재창조한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의 개관으로 문화의 불모지였던 인천은 예술을 전파하는 발진지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지난 2009년 개관 이후 불과 4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인천아트 플랫폼이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자리잡기 까지는 10여년 간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밑거름이 됐다.

지난 1999년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은 옛 부두 개항장의 창고와 건물들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인천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엔 레지던시 개념이 생소했던 터라 인천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인천시에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황순우씨였다. 그는 2000년 지역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받고 비용과 채움, 기억과 향유, 소통을 건축 디자인 컨셉으로 내건 청사진을 제시했다. 즉 보존 건축물을 통해선 역사의 긴 시간속에서 변하는 인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새로 건립하는 건물에선 창작, 전시, 교육 중심의 스튜디오로서 지역작가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총 2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총면적 5600㎡ 규모의 아트플랫폼에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50㎡ 스튜디오·공방 22곳, 해외 작가·큐레이터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9곳이 새로 건립됐다. 외벽을 유지한 채 내부 공간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옛 벽돌 벽에 대비되는 유리 건물의 건축, 건물 간 동선 유도를 위한 브릿지 설치 등도 이뤄졌다.

인천아트플랫폼의 강점은 단지 건물과 공간의 물리적 복원만이 아니다. 예술가들에게 3~12개월까지 안정적인 창작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레지던스는 국내외 미술관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체계적이다. 스튜디오와 전시장, 공연장, 교육공간까지 갖춘 토털시스템은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경쟁력을 자랑한다. 인천시로부터 운영을 위탁 받은 인천문화재단은 매년 12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과 예술

가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특히 단순히 스튜디오에서 작업만 하는 여느 레지던시와 달리 이곳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을 오픈 스튜디오와 쇼케이스,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성과 상품성을 검증받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권의 작가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평균 경쟁률은 국내 20 대 1, 국외 30 대 1에 이를 정도다. 지난해까지 약 200여 명의 작가들이 아트플랫폼을 거쳐갔다.

아트플랫폼의 또 다른 강점은 교육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입주작가들을 강사로 위촉한 ‘도요치의 예술학교’는 작가들의 창작물을 ‘교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접하기 힘든 특화된 콘텐츠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아트플랫폼을 찾는 관람객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람객 수는 2010년 10만1607명에서 2011년 36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또 하나의 빅 프로젝트를 꿈꾼다. 아트플랫폼을 거점으로 인근의 옛 도심 공간 전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대하는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승미(53)관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이 개관 5년 만에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건 명확한 목표와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 시민과 예술가들의 소통이 어우러진 결과”라면서 “레지던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내기 위해선 지역연구주의 철학과 전문인력 확보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장의 설명대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역작가 위주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트플랫폼은 인천작가의 비율이 20~40% 정도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매년 수십여명의 타 지역 작가들이 아트플랫폼에 머물면서 그들의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인천을 담아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관장은 “많은 지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출발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예술의 중요성과 문화공간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레지던시 작가들의 창작물을 선보인 전시회.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센터.

‘2014 광주도시재생 선진지 투어단’ 130여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북촌 한옥마을 등 방문

부산감천마을, 대구근대골목,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서울 북촌 한옥마을...

최근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문화아이콘으로 떠오른 이들 마을의 공통점은 쇠락한 도시를 재생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키워드로 내건 이들의 성공사례는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민·관의 협력체계(거버넌스)는 도시를 되살린 대표적인 성공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을 화두로 광주시와 시민, 그리고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활동들이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광주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조용준·조선대건축학부 명예교수)가 개최한 ‘2014 도시재생 선진지투어’가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사)광주건축단체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2014 도시재생 투어’에는 일반 시민과 남송진 동아인재대 건축학과 교수 및

대학생, 작가, 안윤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관련분야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큰 성황을 이뤘다. 투어 코스는 옛 동대문 운동장 일대를 디자인 창조산업의 발진지로 바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주거지역을 관광 명소로 바꾼 북촌 한옥마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한 인사동 문화지구 등 3곳.

투어 참가자들은 장소(마을)가 지닌 특수성을 현대적 감각과 예술의 상상력으로 되살린 이들 지역을 둘러보며 재생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3월 개관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마찬가지로 주변과의 조화, 랜드마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투어단을 인솔한 안길진 광주광역시 건축사회장은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



지난 21일 ‘2014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의 참가자들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큼 선진지 사례를 통해 재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데 목표를 뒀다”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마을, 예술의 거리, 폐선부지 등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이들 명소를 활성화시켜 머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광주를 벤치마킹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국내외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둘러보는 투어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